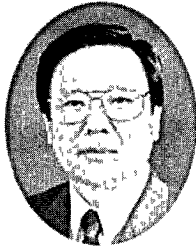


# 인사말씀

會長 李 啓 錫



우리 先輩 韓藥人은 5천년의 歷史와 더불어 民族醫藥의 正統性을 高수하면서 國民保健向上을 위하여 渾身의 努力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부단히 學問研究에도 매진하여 찬란한 韓藥文化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는 先輩님들의 이러한 知慧와 崇高한 뜻을 이어받아 韓藥을 더욱 繼承·發展시켜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學術研究事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지난 97년에는 韓藥協會 歷史 이래 첫 學術誌인 ‘大韓韓藥’을 創刊한데 이어 매년 지속적인 學術事業을 進行하여 오면서 어느덧 ‘大韓韓藥’ 8號誌를 發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大韓韓藥’을 發刊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聲援과 熱情으로 사심 없이 玉稿를 제공하여주시고, 學術事業에 獻身해 오신 學術委員會 委員님들의 勞苦라 하겠습니다.

韓方은 우리 先輩 韓藥人들이 수 많은 臨床過程을 통하여 研究, 發展시켜온 學問이며, 우리 民族의 健康과 生命을 지켜온 우리 固有의 醫術인 것입니다.

우리는 正統 韓藥人이라는 自矜心과 使命感으로 지속적인 學術事業을 통해 死藏될 우려가 있는 소중한 名方을 集成함으로써 우리의 力量을 發揮하는 동시에 이러한 귀중한 學術資料를 통해 後學들이 韓醫藥을 더욱 研究,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韓藥業士가 1983년 이후 後輩養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會員님들의 高齡化

에 따른 廢業·死亡 등으로 매년 會員 數가 날로 減少해 會勢가 弱化되고 있는 게 現實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속적인 研究活動을 통해 會員들이 더욱 和合하고 結束할 수 있는 契機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의 學術事業이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世界傳統 醫藥市場에서 우리 韓方의 優秀性を 인정받는 동시에 影響力을 確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8號誌가 發刊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소병창 學術委員長님 이하 學術委員님들과 오랜 세월동안 갈고 닦아 오신 研究結果를 公開해주신 會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4004年 5月